Nature + Natural

폭염과 한파, 국지성 호우, 봄과 가을이 짧아지는 등 세계 각지에서 눈에 띄는 자연재해가 잦은 요즘이다. 많은 학자들이 앞 다투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귀에 익은 잔소리 정도로 들리는 모양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자연의 신음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끊임없이 거론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갖는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망각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술작품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이야기, 그리고 젊은 시선으로 바라본 오늘날의 우리 삶 속 자연은 어떤 모습일까?

김성수는 철을 용접하여 조각을 만든다. 인위적으로 금속재료를 녹이고 재조합하여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자연현상과 대조적인 행위이지만 이를 통해 다시 자연과 닮은꼴을 제작하는 여정이 흥미롭다. 그가 작업에 쏟는 노동은 자연을 닮고자하는 의지의 표현과 같다. 단단했던 재료는 작가의 손을 거쳐 친근하면서 유연한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처럼 철이 가진 차가운 물질성 위에 따뜻하게 표정을 덧입히는 능력이 돋보인다. 결과적으로 재료와 형태가 맞물리며 주는 묘한 느낌이 인상적이다.

이동형은 동양화의 몽환적이고 포근한 색채를 사용하여 비판적 시각을 담는다.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Dreaming>이라는 제목이 주는 인상처럼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본 그림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훼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그것이다. 화면 안에서 주제 전달은 실제 자연의 모습과 같이 잔잔하고 고즈넉하게 이루어진다. 치밀한 터치와 맑고 투명한 색감이 전달하는 표면의 경쾌한 감상과 이면에 숨겨진 내용이 무게중심이 되어 작품 속 균형을 이룬다.

서로 다른 매체를 사용하며 각자 다른 표현영역에 있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위의 두 작가는 같은 목소리로 자연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전시제목인 <자연스러운 자연>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영역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인간 본연의 순수성을 재생시켜주는 매개체가 된다. 자연의 꾸밈없는 상태를 통해 인간도 원래의 성질을 떠올리고 되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 전시는 그에 속하는 인간을 향한 애정 역시 포함한다.

<자연스러운 자연> 을 통하여 두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과 과정, 해석하는 자연의 형태에 주목해 보자. 전시장에서 작품을 관람하는 동안 떠오른 자연을 계기로 그것에 대해 깊은 사유의 기회를 갖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최희승, 예술학